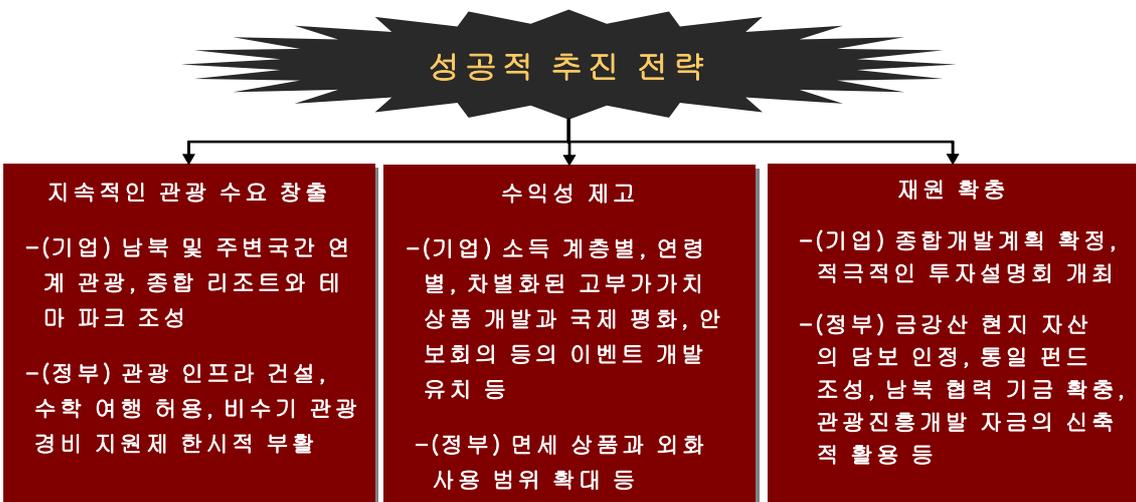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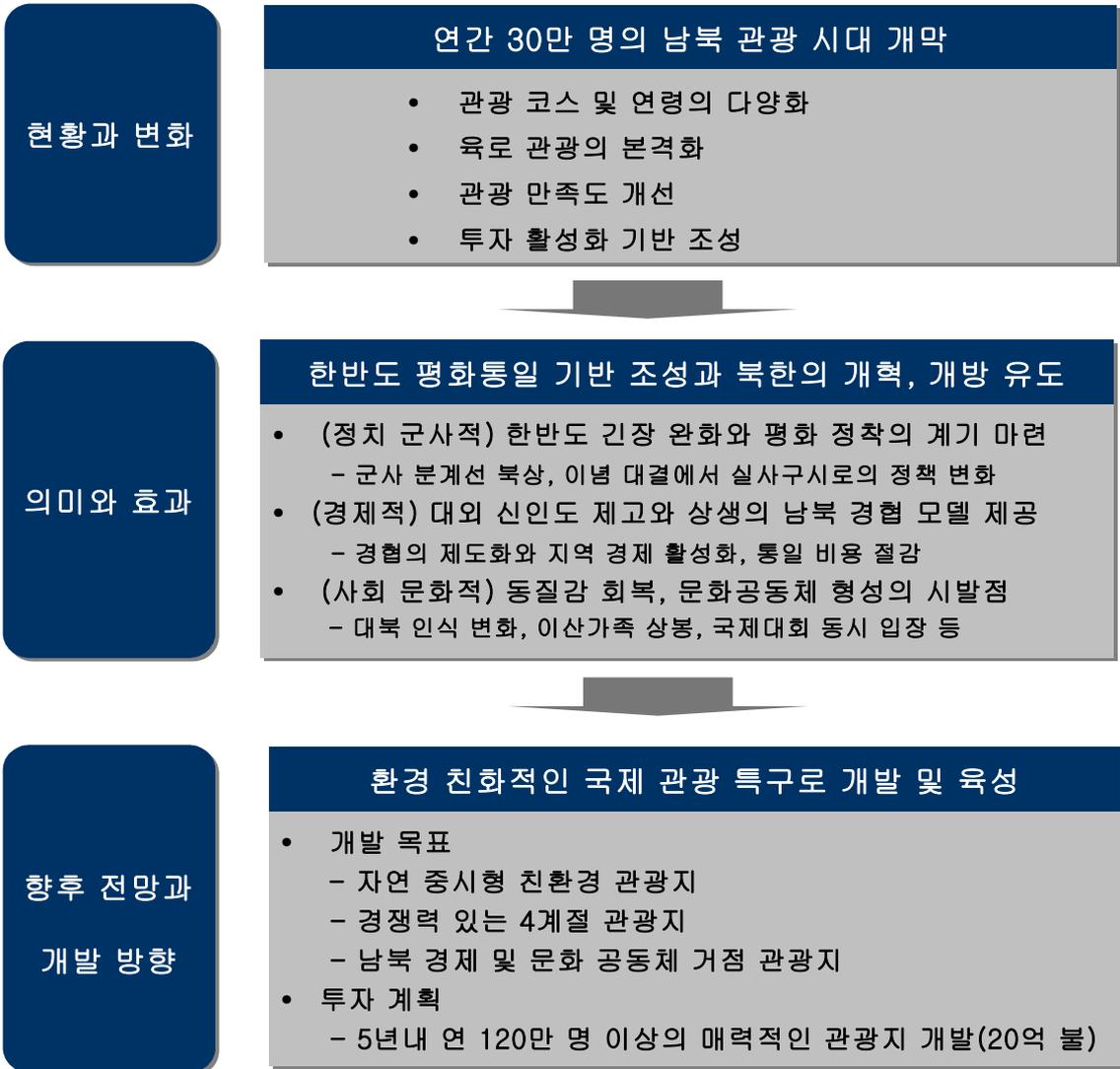


<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의 성공 조건 >



□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의 성공 조건

- 금강산 관광 7주년 평가와 과제

1. 연 30만 명의 남북 관광 시대 도래

○ 육로 관광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7년 만에 총 114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연간 30만 명의 남북 관광 시대가 도래

- 남북 관광 시대 개막 : 육로 관광의 본격 시행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됨으로써 2004년부터 연간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
- 금강산 관광은 故정주영 명예회장의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 체결(1989. 1) 이후 약 10년만에 ‘금강호’를 첫 출항(1998. 11. 18)시킴으로써 결실을 거둠
- 육로 관광의 본격 시행(2003. 9)과 해수욕장 개장과 숙박·편의 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2004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5년 1~10월말까지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7만 4,000명에 달함

< 연도별 관광객 추이 >

(단위 : 천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1~10
관광객	10.5	147.5	212.0	58.8	87.4	77.7	272.8	273.8
누적	10.5	158.0	370.0	428.9	516.3	594.0	866.8	1,140.6

- 관광 연령의 다양화 : 10대 관광객 비중의 증대로 20대 이하의 젊은층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관광 계층이 다양화되었음
- 40~60대 비중 감소: 2000년 72.0%→ 2004년 66.0%→ 2005. 1~10월 62.5%
- 20대 이하 비중 증가: 2000년 8.9%→ 2004년 19.8%→ 2005. 1~10월 21.8%
- 관광 코스의 다양화 :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됨
- 육로관광으로 관광 상품도 당일, 1박2일, 2박3일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 **관광 만족도 개선** : 교예단 공연과 온천장, 호텔 등의 숙박·편의 시설 확충과 통관 절차 축소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 만족도 증가: 2002년 64.3(다소 만족)→ 2003년 58.7(보통)→ 2004년 71.0(만족)
 - 재방문 의향: 2002년 49.4% → 2003년 77.5% → 2004년 94.2%
 - 특히 이 조사가 각 년도 11월말~12월 초의 비수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
-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50년간의 토지이용권을 비롯하여 금강산 특구법과 9개의 하위 규정이 발표됨으로써 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
 - 2002년 11월에 금강산관광지구의 특구법이 공포된 이후, 개발 및 설립·운영 규정과 광고 규정 등에 이어 2004년 9월에 부동산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자간 협의해 오던 10개 규정 중 9개 규정이 발표되었음

2.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 **대규모 물적·인적 교류 확대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경협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에 크게 기여**
- (정치·군사적)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
 - **군사항 개방** : 1999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추진으로 민간인 최초로 휴전선을 넘음으로써 철책선의 한반도 장벽을 허물었고 장전향을 개방시킴
 - **군사분계선의 북상** : 해상 및 육로 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켰을 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군과 인민군 관할 하에 있던 DMZ 일부가 남북 양측 관리 하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문제가 부분적이거나 '민족화'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
 -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 : 당국간 공식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 수행, 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
 - **평화 통일의 구체적 실현** :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이념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사구시로의 정책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적대적 대립'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고, 여타 경협 사업으로의 확대와 해상·육로 연결 등을 통해 법적 통일이 아닌 사실상의 평화 통일 구현의 단초를 제공

- 통일 단축 효과 : 북한의 대남 자세 변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체제 구축, 남북간 경제력 격차 축소 등을 통해 통일 비용 절감과 통일 시기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20.2%는 1~2년, 61.2%는 3~6년, 18.6%는 7년 이상 통일을 앞당긴다고 답변)
- (경제적) 대외 신인도 제고와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 통일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과 남북 경협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대외 신용도 제고 :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 신용 등급의 급락 예방 등을 통해 외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킴
 - 투자 단계로의 경협 시대 개막과 경협의 제도화 마련 : 단순 교역 및 임가공 수준의 남북경협을 투자 단계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여타 경협 사업으로의 확대 및 3통(통행·통신·통관)과 경협합의서 체결 등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하였음
 - 지역 경제 활성화 : 금강산 관광으로 국도 7호선의 확장·포장과 고성항 주변의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 지역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 관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게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상관행에 대한 학습효과와 개혁·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국제무대로의 진출 기회 확대를 촉진시킴
 - 통일 비용 절감 : 경협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자본·기술 이동,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 완화 등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통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철도 연결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시발점을 제공
- (사회·문화적)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
 - 상호 이질감 해소 :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만남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정신이 증진될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을 해결해주는 돌파구를 제공(보다 많은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
 - 통일 교육장 역할 : 금강산 관광을 통해 대북·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전후 세대들이 다소 높게 나타남 (2004년 77.6%는 긍정적으로, 1.3%만이 부정적 변화로 응답, 50대 이하의 비율은 79.2%)

-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 : 평양교예단 공연과 통일농구대회 등을 통한 상호 신뢰감 형성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각종 국제대회 동시 입장과 응원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문화·종교 행사로 이어짐으로써 남북 문화·교류 확대의 지평을 엮

3. 환경 친화적인 국제 관광특구로 개발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반도의 대표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민족 경제·문화공동체 형성의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
 - (개발 목표) 자연 경관 감상의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천혜의 절경과 휴양·문화 시설이 어루어진 환경 친화적인 국제 관광특구로 개발할 예정
 - 자연 증시형 친환경 관광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자연과 더불어 휴양·건강·스포츠 체험 등의 다양하고도 고급화된 자연친화적 리조트를 조성
 - 경쟁력 있는 4계절 관광 : 관광 지구 확대 및 가격대별·계절별 차별화된 테마 상품 개발과 함께, 음식·쇼핑·위락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를 제공
 - 남북 경제·문화공동체 거점 관광 : 남북한 모두에게 상생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함께, 인적·물적·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통일 체험의 장으로 개발
- (투자 계획) 향후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년 이내에 연 120만 명 이상이 관광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개발할 예정
 - 민간 부문 : 금강산 및 원산 지구를 10개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 숙박·위락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해나갈 것임
 - 공공 부문 : 전력과 철도·도로 및 공항·항만, 산업 단지 등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편안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육성해나갈 것임

4. 동북아 연계 관광 추진과 통일펀드 조성

- 지속적인 관광 수요 창출과 수익성 제고,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관광 수요 창출) 관광 영역 확대와 숙박·위락 시설 확충, 자율성 확대, 각종 이벤트 기획 등을 통해 계층별·연령별 차별화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재방문 및 지속적인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임
 - 관광 영역 확대 : 내금강과 총석정 등 금강산 지구 내는 물론, 평양과 묘향산·백두산 등 금강산 이외 지역과 설악산 등지와 남북 연계 관광 확대와 함께, 일정의 다양화 및 중국·일본과도 연계한 3국간 상품 개발도 필요
 - 숙박·위락 시설 확충 :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연령별에 맞는 다양한 숙박 및 위락 시설 확충이 필요
 - 관광의 자율성 확대 : 통과 시간 단축 등의 절차 간소화, 개별 승용차 관광과 관광 지구 내 자율성 보장, 주민 접촉 및 체험 상품 개발 등이 요구됨
 -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 통일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학 여행 허용과 비수기의 교사 및 유공자에 대한 관광 경비 지원 제도의 부활이 필요
- (수익성 제고) 면세 범위 확대, 소득 계층별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각종 국제회의 유치 등이 요구됨
 - 면세 범위 확대 : 면세 상품과 관광객의 외화 사용 범위 확대 등 국제적인 관광 특구에 걸맞는 다양한 상품 허용이 필요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 소득 계층별·연령별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함께, 국제 평화안보회의 등의 각종 글로벌 이벤트를 개발 유치해야 함
- (재원 확충)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계획 마련과 함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일 펀드 조성 및 국내 금융 제도 개선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
 - 투자 유치 계획 마련 :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의 확정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외자 조달 방안을 강구
 - 통일 펀드 조성 :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자금 출처 면제의 중장기 저리 통일채권 발행과 함께,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내외 투자자들과 연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통일펀드 조성 차원의 정부 보증 필요
 - 국내 금융 제도 개선 :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제한 규정 개정과 금강산 현지 자산의 담보 인정, 남북협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자금의 신축적 활용을 통한 숙박·편의 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등

홍순직 수석연구위원(3669-4182, sjhong@hri.co.kr)